

윤성원 제1차관, “공공건설현장부터 진단 검사에 적극 참여” 당부 -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서울역 건설현장 찾아 방역실태 점검·진단검사 권고 -

-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서울역 건설현장을 찾아 코로나-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, 공공건설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권고했다.

- 윤 차관은 코로나-19 방역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, “최근 코로나-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강도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등의 방역 조치로 확진자 급증세를 억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” 이라면서,
 - 특히, 건설현장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만큼 현장 안팎으로 감염 취약요인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,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해 달라”고 거듭 당부했다.

 - 아울러, “환기가 어려운 지하 현장의 특성상,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수시로 현장 소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- 마지막으로, 윤 차관은 “최근 공공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코로나-19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시달된 만큼, 공공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”을 주문했다.

2021. 8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